현충시설 협력망 공동기획전 전시활동지

짓밟힌 청춘,

Trampled-on Youth, who are Standing at the Center of History

역사의중심에



전시 구성

Composition of the exhibition

전시 <짓밟힌 청춘, 역사의 중심에 서다>는 일제강점기 학생들이 주도 했던 학생독립운동을 바탕으로 체험과 유물 탐구가 가능한 2가지 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The exhibition, "Trampled-on Youth, who are standing at the Center of History", consists of two boxes, one on experience and one with an artifact connected to the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설명·체험상자 Explanation & Experience Box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상자

Learn about and experience the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광주고등보통학교장이 학부형에게 보낸 안내장 A letter of notice sent by the principal of Gwangju Secondary School to parents of students

전시를 열며

Preface to the exhibition

1929년, 삭막했던 일제강점기에도 학생들은 세상을 향한 꿈을 꾸고 독립을 위한 열망을 키워왔습니다. 시대적 환경에 짓밟혔던 청춘은 포기하지 않고 만세 시위, 백지동맹, 동맹휴학 등의 방법으로 다시금 독립 의지의 불꽃을 피워냈습니다. 청춘이 일으킨 작은 불꽃은 곧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독립운동으로 확산되어 그들은 역사 속에 당당히 '식민지배 철폐', '민족 해방'을 이야기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학생독립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청춘의 학생들이 이루고자 했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며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사랑 정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ven in 1929, during the national darkness that was the Japanese occupation, students dreamed about the future and developed a desire for independence. Despite being trampled underfoot by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they did not give up on independence, but kept its spark alive through street protests, interschool agreements to submit test papers with no answers filled in, class boycotts and other means. These small youth-led actions soon spread nationwide and became international campaigns, with youth remembered in history as proud independence fighters who talked about national liberation and the abolition of colonial rule.

This exhibition seeks to inform visitors about the student movement for independence(one of the three major independence effor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reflect on the noble values that those students desired to achieve, and share the spirit of love for the country they dreamed of.

조선교육령

Joseon education decre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조선교육령은 일제강점기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으로 1911년부터 1943년에 이르기까지 총 4차에 걸쳐 개정·공포되었다.

교육령의 시행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조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교육을 통해 황국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독립운동에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Joseon education decrees set forth Imperial Japanese education policy and education laws for Koreans, and were promulgated or revised four times between 1911 and 1943.

These decrees deprived Koreans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ultimately aimed to exploit the Korean labor force and instill pride in them as subjects of Imperial Japan lest they participate in independence efforts.



『고등보통학교 수신교과서』 중 '쇼와시대의 은혜'

수신교과서는 현재의 도덕교과서와 비슷하지만 '황국신민'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일왕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조하던 과목이다.



나주보통학교 _{_ 1913년}

3

스티커를 이용해 신문을 완성해주세요.

○○○○년 □□월 △△일 ◇요일

#0019113843

1차 조선교육령

데라우치 총독은 1911년 8월 전문 30조로 이루어진 제1차

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인 학생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빼앗 기고 을 통한 노동력

착취 대상이 되었다.





2차 조선교육령

3·1운동 직후 개정된 2차 조선교육 령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교육제도를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족사상과 문화를 하는 것에 주안 점을 두었다.

총독부, 교육령을 시행하다

3, 4차 조선교육령

1938년 미나미 총독	투은	를 보다 더	철저하게 추	진
하려는 의도로 법령	병을 개정해 제3	차 조선교육	령을 공포하	였
으며, 1943년 개정	된 4차 조선교육	령을 통해 학	생들을 징용	과
징집에	하였다.			

신문 완성하기 스티커



강제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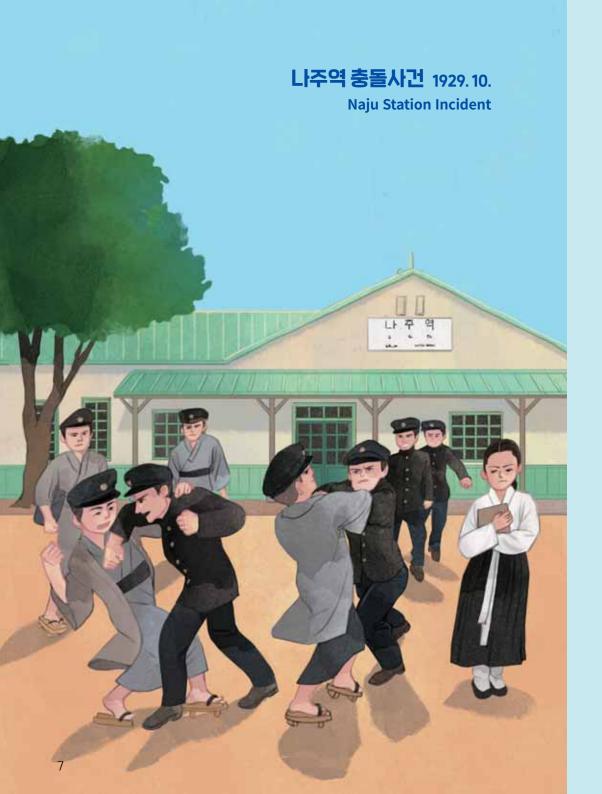
황국신민화

말실

실업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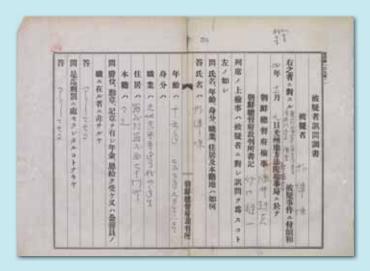
조선교육령





1929년 10월 30일 하교를 위해 나주역에서 나오던 한국인 학생을 일본인 학생이 희롱하고 밀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목격한 조선인 학생이 항의 하였으나 "조센징 주제에···"라는 조롱으로 되돌아왔고, 모욕감을 참지 못한 박준채가 주먹을 날려 격투가 발생하였다. 사건을 목격한 일본인 순사는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들의 편만 들어 조선인 학생들의 분노를 이끌어냈고, 이 사건은 학생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On October 30, 1929, some Japanese students harassed and pushed around some Korean female students as they were leaving Naju Station on their way home from school in Gwangju. Korean male students who witnessed this protested, only to be called "Josenjin", a derogatory term used against Koreans. One of the Korean students, Park Jun-chae, unable to tolerate the insult, threw a punch and a fight broke out between the students on both sides. The Japanese police who witnessed the incident sided with the Japanese students, arousing anger among Korean students at large and making the confrontation a catalyst for the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박준채 검사 신문 조서 $_$ 1942. 11. 9.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나주역 충돌사건의 주역인 박준채의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이다. 박준채의 이름, 직업, 연령, 주소 등이 적혀 있다.



미완성된 10.30. 당시의 풍경을 **색칠하여 완성**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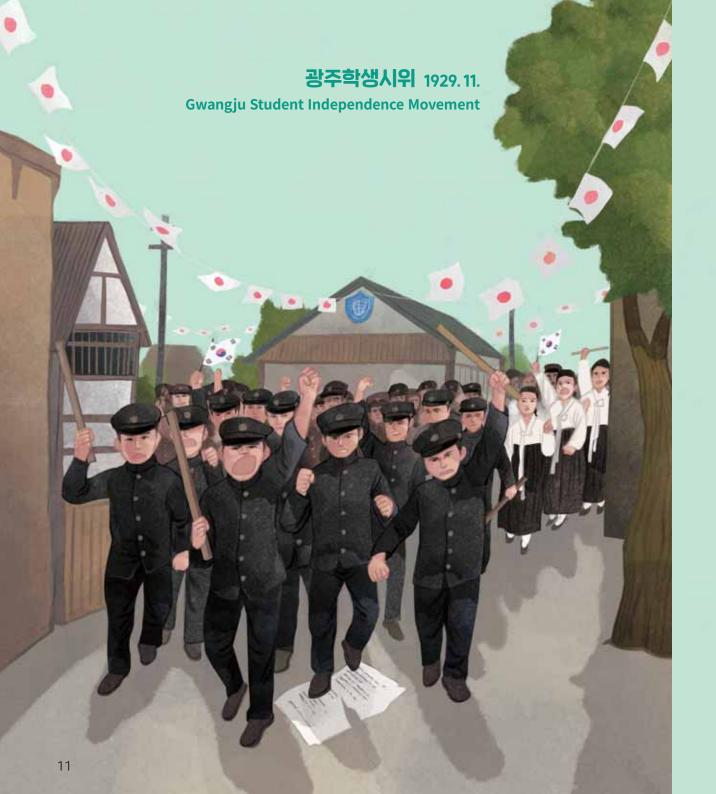












11월 3일 그동안 쌓여오던 한·일 학생들 간의 갈등이 폭발하였다. 1차 충돌이 발생한 후 3차까지 대치가 이어 졌으나 일제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해산시켰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책 논의 후 시위행진에 돌입하였고, 인근 학교 학생들까지 가세하여 대규모 시위행진으로 확산되었다. 이날의 시위는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시위 이자 학생들로만 이루어졌던 첫 대규모 시위였다.

On November 3, 1929, the growing tens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exploded. After the first clash, two more ensued, which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broke up. However, upon discussing countermeasures, the Korean students began to demonstrate on the streets, with students from nearby schools joining in, turning the demonstration into a large-scale protest march. It was the largest demonstration since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and the first sizable one to be organized and led only by students.

나는 광주학생시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광주학생시위에 관한 아래 문항을 읽고 옳은지 틀린지 표시해보고.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맞힌 개수에 해당하는 상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_	_	
7	•	ø	١
L	7	А	
	•	_	4

- ① 일제는 1929년 11월 3일에 일제의 4대 국경일인 '명치절'이자 전남산 누에고치 6만석 돌파 경축행사를 열려고 했다.
- ② 1929년 11월 3일은 비밀결사단체였던 성진회의 3주년 기념일이다.
- ③ 광주학생시위는 한국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에게 시비를 걸어 발생하였다.
- ④ 첫 충돌은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학생을 단도로 찌른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 ⑤ 광주고보생들이 시위를 끝내고 돌아온 시간은 오후 4시 경이었다.
- ⑥ 학생들은 시위 당시 조선독립,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를 주장하였다.

⑦ 시위는 독서회원들이 앞장섰다.

- ⑧ 이날의 시위는 학생들로만 이뤄졌던 대규모 시위였다.
- ⑨ 일제는 시위 다음날 모든 중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시위에 참여한 조선인 학생 수십 명을 당일 퇴학시켰다.

☞ 진단해보기

1~3개

광주학생시위에 대해 아직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전시물을 통해 많은 것을 알아보세요.

4~6개

광주학생시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군요. 여러분이 몰랐던 광주학생시위를 이번 전시에서 살펴보세요.

7~9개

광주학생시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학생독립운동의 전국 확산 1930.2.

Nationwide spread of the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광주에서의 학생봉기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일제는 이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전국확산 계획에 따라 학생독립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진행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전국 320여 개 학교 5만 4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한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재확인시켜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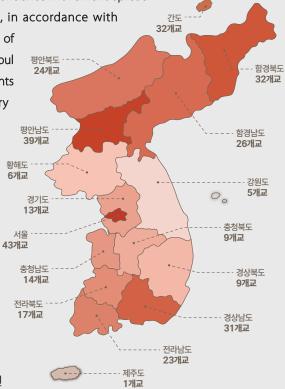
Realizing that the student uprising in Gwangju could have nationwide impact, the colonial Japanese government banned the media from reporting on the incident. The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anyways, in accordance with plans to make it national. As a resul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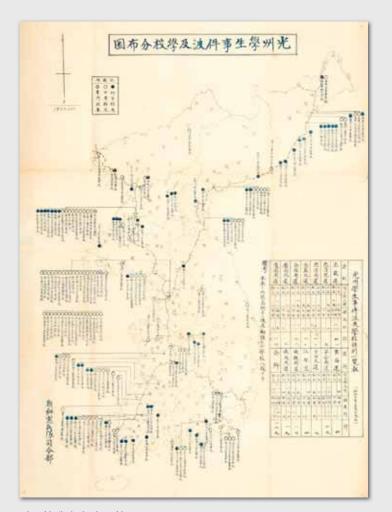
inducing participation by youth in Seoul

and other major cities, 54,000 students from 320 schools across the country

participated, reaffirming the Korean people's will for independence.



전국으로 확산된 학생운동과 참여 학교 수



광주학생사건 파급 학교 분포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15

학생독립운동가들이 방해를 피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O, X퀴즈를 풀어 길을 찾아주세요**.

